“성공적 귀농 위해 굳건한 마음으로 최선 다해야”

새싹삼.

하우스에서 자라고 있는 새싹삼.

전남 귀농산어촌인을 만나다 <3> 담양 ‘삼무루지새싹삼’ 전은경 대표

담양 기술센터서 재배 기술 지원
천연 암반수 수경재배 특허 성공
생산부터 판매·직거래·체험 진행
“철저한 탐구 기반 확신 들어야”

“계속해서 옮겨 다니며 정처 없이 떠도는 철새 같은 삶보다는, 안정적인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고향’을 만들어 주고 싶어 귀촌을 결심했습니다.”

담양군 창평에 위치한 슬로시티에 자리 잡은 ‘삼무루지새싹삼 농장’ 전은경 대표가 귀농을 결심한 이유는 특별하지 않았다. 단지 딸아이에게 진정한 ‘고향’을 만들어주겠다는 일념 하에 시골로 향한 전 대표는 현재 17년간 창평에서 거주하며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다.

광주에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다는 그는 “제 주변뿐만 아니라 딸아이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며 떠나게 되면서 문득 고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며 “청소년기를 앞둔 딸에게 따뜻한 고향을 선물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2년간 귀촌을 준비했고, 17년 전 작지만 아름다운 담양 창평으로 이사 오게 됐다”고 회상했다.

전 대표는 그렇게 자리 잡고 생활하던 중 마음이 맞는 두 친구들과 의기투합해 농사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새싹삼’이라고 말했다.

새싹삼은 손가락 정도의 크기로 잎과 줄기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는 특별한 약용작물이다. 새싹삼은 인삼에 함유된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뿌리보다 이파리에 많다는 점에 착안해, 부드러운 이파리를 야채처럼 키워 출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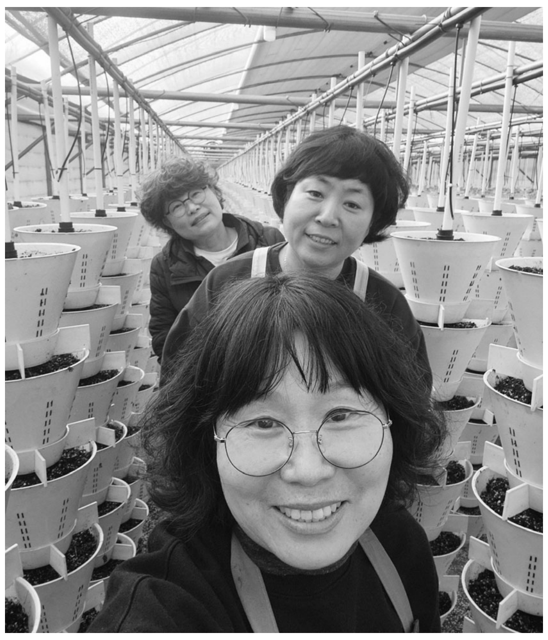
전 대표는 “흔치 않았을뿐더러 그전에는 접해보지도 못한 농산물이었으나 관련 기술을 가르쳐 주신 사장님과 담양군 기술센터에서 지원받은 재배 기술을 기반으로 오랜 시행착오 끝에 생산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이 통해서일까. 귀농 이후 운영자금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전 대표는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완전히 홀로 설 수 있는 데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지금은 기술력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실제 전 대표는 440평 면적에 달하는 하우스에서 ‘느림의 미학’을 통해 LED가 아닌 자연의 햇살과 바람을 통해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고, 지하 200m 천연 암반수 수경재배를 통해 특허를 받는 데도 성공했다.

전 대표는 “새싹삼은 사람이 좋아하는 온도인 20도 전후에서 잘 자라는 데다, 이파리를 통째로 먹는 식품이기에 물 이외에는 특별히 줄 수 없어 물 자체에 신경을 많이 쓰는 등 친환경 재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양 삼무루지새싹삼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전은경(맨 뒤부터), 김진아, 박설희 대표.

농장을 찾은 아이들이 새싹삼을 활용한 음식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전 대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새싹삼의 매력을 알리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농장에서는 새싹삼을 심고, 뽑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도 배울 수 있다. 생산과 온라인 판매, 직거래와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전 대표는 “많이 안정됐지만 아직도 개인사업자로서 녹록지 않은 현실에 부딪히며 일적으로나 소득 면에서 여유롭지는 않으나 함께 시작한 동료들과 어떤 어려움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 해 한 해를,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귀농을 꿈꾸는 이들에게, 평화로워 보이는 농촌의 삶도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며 “철저한 탐구와 탐색을 거쳐 확신이 들어도 어려운 것이 귀농이다. 굳건한 마음과 각오를 바탕으로 최선과 열정을 다한다면 귀농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이 취재는 전남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서울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남농기원, 전남생명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디지털마케팅·친환경특용작물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등 목표

전남농업기술원은 미래 디지털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2025년 전남생명농업대학 신입생을 오는 2월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생명농업대학은 1년 과정으로 디지털마케팅 20명과 친환경특용작물 20명, 총 40명을 선발한다. 신입생들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이론과 현장 교육을 함께할 계획이다.

디지털마케팅 과정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농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이다. 농식품 유통 환경에 적용 가능한 챗지피티(ChatGPT) 활용, 라이브커머스, 유튜브, 숏폼 및 릴스 제작, 스마트스토어 운영 및 SNS마케팅 등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다루는 기술을 익혀 디지털마케팅 전문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친환경특용작물 과정은 안전 먹거리와 고소득 작목 생산·보급에 관심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아쿠아포닉스, 큐브, 스마트팜 시설 등 첨단산업을 활용한 새로운 친환경 농산물 생산법과 기능성 고부가가치 특수작물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하며, 농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와 더불어 농산업 분야 최신 트렌드 선제 대응을 위해 농산업 명사 특강을 통해 새로운 농업 마인드 함양 기회도 제공한다.

입학을 바라는 지원자는 전남도농업기술원(농업교육과)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농업기술원 누리집(www.jares.go.kr)을 참조하거나, 농업교육과(061-330-2733)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생명농업대학 학생들이 친환경특용작물 과정인 아쿠아포닉스 현장 교육을 받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전남생명농업대학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11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들은 지역 농업 기술의 핵심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비대면 유통 확산 등 거대한 변화의 바람 속에서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 생산비 절감, 유통망 구축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새 기술과 지혜를 익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